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시장 진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들은 통신업계 심장부에 직접 진출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와이브로로 스프린트와 손잡은 것이 대표적이라면, SK텔레콤이 차세대 통신 중심지인 중국 시장에서 차이나유니콤과 협력하기로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글 | 심우성 기자(아이티타임스)

삼성, '스프린트 · 인텔 · 모토'와 전략적 제휴

국내 와이브로(WiBro)와 2008년 미국 상용 서비스가 확정된 것은 국내 통신 역사에서 이룩한 쾌거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스프린트 넥스텔 · 인텔 · 모토로라 4사가 손을 잡았다.

한국이 독자개발한 기술이 '통신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본격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통신기술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 한국이 세계 이동통신 혁명을 주도하게 됐다"고 의미를 뒀다.

삼성전자는 스프린트 넥스텔 · 인텔 · 모토로라와 지난달 8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와이브로 분야 협력 및 상용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미국의 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는 이날 제휴에 따라 삼성 와이브로를 차세대 통신기술인 4G의 플랫폼으로 공식 채택, 미국 전 지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차세대 이동 기술 리딩"=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와이브로 시스템 및 단말기를 공급받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왔던 스프린트는 2008년부터 미국 전 지역에서 본격적인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 중의 하나로, 차세대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되는 2.5GHz 대역의 주파수를 85% 이상 확보하고 있는 스프린트는 와이브로 상용화 시점까지 가입자 1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프린트는 와이브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과 모토로라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삼성전자는 스프린트가 성공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지국 장비·단말기·칩셋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와이브로 확산을 위한 공동 마케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와이브로 기지국과 단말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 와이브로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온 삼성전자는 이번 스프린트와의 제휴로 미국의 차세대 기간통신망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와이브로 글로벌 리더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은 “와이브로 상용화 결정은 미국 통신산업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스프린트가 와이브로를 통해 세계 정보통신 산업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올러 이 사장은 “현존하는 이동통신 기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구현한 와이브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프린트의 개리 포시(Gary Forsee) 사장은 “스프린트는 와이브로 분야에서 최고의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제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와이브로를 상용화해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중기·삼성 IT코리아 신화 창조 = 통신 시스템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망으로, 삼성전자에 따르면,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통신 시스템이 '통신 종주국' 미국 본토에 본격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기태 사장은 “우리나라의 와이브로가 대한민

국 정보통신 역사상 처음으로 통신 선진국인 미국의 기간망으로 채택됨으로써 한국의 IT 기술 및 관련 산업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미국 본토에 한국산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간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G 이후 이동통신 기술 주도권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의 IT839 정책이 힘입어 한국의 와이브로가 미국 통신 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와이브로의 세계 시장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삼성전자는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의 업체의 자국 통신 시장 진출에 엄격했던 미국이 와이브로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와이브로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국가들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이탈리아·크로아티아), 북미(미국), 남미(베네수엘라·브라질), 아시아(일본) 등 각 대륙 7개국에서 9개의 메이저 사업자와 와이브로 공급 및 상용화를 진행해 왔다.

삼성 와이브로의 미국 시장 진출은 이와 함께 CDMA 상용화로 IT 코리아 성공신화를 창조했던 한국이 IT 분야에서 새로운 수종산업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와이브로 시스템과 단말기를 포함한 세계 시장 규모는 2007년 1조 6000억원, 2008년 3조 8000억원, 2009년 6조 6000억원 등 매년 고속 성장을 거듭해

2010년에는 11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와이브로의 미국 진출이 IT 분야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와이브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 효과만 27만 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와이브로 미국 시장 진출은 정부와 중소기업, 삼성전자간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이루어낸 ‘IT 코리아의 성공신화’라며 “와이브로가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SKT-차이나유니콤 ‘CDMA 氣살리기’ 맞손

SK텔레콤 역시 차이나유니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이동통신 사업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SK텔레콤은 중국 제2의 이동 통신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CDMA서비스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제휴협정서(Strategic Alliance Framework Agreement)’ 를 지난 6월 체결했다.

차이나 유니콤은 1억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중국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이며, 2002년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CDMA의 경우 지난 4월 가입자 340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제휴는 SK텔레콤이 차이나 유니콤의 홍콩상장법인인 CUHK(China Unicom Limited)가 발행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CUHK는 중국 내 실질적 통신운영 기업인 차이나유니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CB의 주요 조건은 3년 만기이고,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부터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액 주식 전환시 CUHK 전체 지분의 6.6%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사는 차이나 유니콤의 CDMA사업에서 단말기·부가서비스·플랫폼 공동개발과 함께 상호 컨설팅 제공·노하우 공유·시장 정보제공 등 상호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양사는 또, 이번 전략적 제휴 분야에 대해 상호 배타적 원칙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2007년 12월말까지 중국 내에서 독점적 파트너 지위(Sole & Exclusive Partnership)를 부여키로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전략적 제휴는 세계 본격적인 최대 시장 중국 진입을 위한 첫걸음이자, WTO시장 개방을 앞둔 중국통신시장 선점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직접지분투자가 아닌 CB방식 투자를 통해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킨 것은,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향후 중국 시장의 3G사업자 선정 등 환경 및 정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및 중요한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제휴는 SK텔레콤 외에도 단말기 제조업체, 콘텐츠 제조업체(CP)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관련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은 물론 고속성장 중인 중국통신산업의 빠른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전략적 제휴로 향후 3년 내 6억 명 이상의 가입자(신규 및 이동 포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잠재력과 최근 3세대 이동통신업체선정 및 증가하는 신규부가서비스에 대한 중국시장의 높은 관심도까지 고려한다면, 국내 IT업계에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중국시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예상되는 매력적인 시장이며, 이번 CB 매입을 통한 전략적 제휴는 차이나 유니콤 CDMA 사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SK텔레콤이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K**

